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광둥외어외무대학교	기숙사비	48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광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9.02.26~2019.06.28	기타비용	보험비 현지 납부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07 . 26 .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이 지정 됩니다. 외국어 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모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한국인은 반마다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반이 지정이 되면 듣기 말하기 독해 쓰기 종합 중 5가지 수업을 듣게 됩니다. 반은 초1,2,3,4 중1,2,3,4 고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학생들이 많으면 반을 a, b반으로 한 번 더 나누기도 합니다.

초급반에는 쓰기 수업은 없고, 금요일 날 수업이 없습니다. 중급반부터 쓰기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전 수업은 반마다 2-3번씩 있으며, 8시 반부터 수업이 있습니다. 오전 수업이 있는 날은 오전에 수업이 끝나,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정식 수업이 끝나고, 서예나 태극권 중국 노래 배우기 등 교양수업도 편성 되어 있어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많습니다. 대부분 어학당 수업의 교수님들은 젊은 편이셔서 수업 들을 때 재밌게 학생들과 동요되어 편하게 수업해주십니다.

또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주일 정도 봅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수업 과제는 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던 중급반은 수업 마다 꼭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편은 아니고, 수업 책의 내용을 미리 알아오거나 문제를 풀어오는 식의 숙제가 있었고, 가끔 자신의 나라 문화나 자신의 나라의 대한 소개 ppt를 제작해 발표하는 등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과제들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 위치는 바이원구에 위치 해 있습니다. 바이원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나 디디를 타면 20-30분 정도 소요되며, 공항과 가까운 편입니다. 학교 북문 쪽에 문구점, 식당, 카페 등 여러 편의시설이 많았으나, 2019년 1학기 끝나고 재개발을 들어가게 되어 북문에 있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바로 앞 쪽에 상점들은 문을 닫았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등이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또 학교 앞 쪽에서 버스 타고 5-6정거장이면 큰 광장들이 많아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광저우 기후는 남쪽에서도 남쪽 끝에 있고, 열대기후라서 많이 더운 편입니다. 심지어 제가 갔던 2월에서 6월 1학기에는 우기라 더욱 습하고 더웠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 적었고,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의 날씨가 좋은 편이라고 들었고, 12월쯤에는 한국과 달리 난방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아, 전기장판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은 학교 바로 앞 상점들은 문을 거의 닫아 대부분 배달 어플(알이마이)을 이용하거나 학교 근처 광장, 한인 타운을 이용했습니다.

디디나 택시를 타면 대부분 10분 안쪽으로 큰 광장들을 갈 수 있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4800위안(현지 납부)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외국인 기숙사는 여학생 기숙사 c동과 남녀 같이 쓰는 16동이 있는데, 남학생이 파견된다면, 16동으로만 배정 됩니다. 제가 있을 당시 2019년 1학기 기준 따로 기숙사 규정이 없었으나, 2학기부터 규정이 따로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주요사항	주요 사항이 따로 크게 있지 않지만, 굳이 별자면 16동의 경우는 화장실이 방 안이 아니라 밖에 비치되어 있어 벌레가 많이 들어옵니다. 광저우 날씨는 덥고 습해, 벌레가 많은 편이라 벌레 약을 사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숙사에 온수는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외국인 여학생 기숙사인 c동은 2인 1실로 되어 있고, 책상과 침대 의자 등 전부 구비 되어있으며, 사진 상에는 안보이지만, 옷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광저우 날씨는 습해, 모기가 많은 편이라서 가서 바로 모기장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학기 파견자는 에어컨으로 충분하지만, 2학기 파견자는 기숙사가 추워, 전기장판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기숙사에 가서서 구매하셔야 할 품목으로는 이불, 모기장, 옷걸이, 건조대 등이 있습니다.

사 진 첨 부

c동 화장실의 경우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온수를 쓰기 위해서는 온수 카드를 항상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온수 카드는 학생증 카드로 충전 할 수 있어, 온수카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첫 충전 시에는 4시 이전까지 충전 하는 곳에 가서 직원에게 직접 받아야합니다. 첫 충전 이후에는 어플을 통해 온수충전 기계로 시간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남자 분이 파견 되신다면 16동 기숙사로 배치되는데, 16동은 방 밖에 화장실이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진 첨 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테라스 쪽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 c동과 같이 샤워부스와 세면대 번기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6동 또한 화장실이 복인 부분 말고는 2인 1실로 같은 가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는 16동이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방이 약간 더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수 카드 이용도 동일합니다. 또한 온수 사용 가능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아니면 온수카드를 사용해도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 진 첨 부

기숙사에서 수업 듣는 건물(7교나 nba)과 가까워 편하고, 택배를 받는 곳과도 멀지 않아 편합니다. 대부분 편의 시설이 기숙사와 멀지 않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 진 첨 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 진 첨 부

도서관의 경우 정문(서문)과 가까이에 있으며, 학생중 있어야 입장 가능합니다. 학교 도서관이 큰 편이고, 시험기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도서관 안 편의 시설로는 학생 카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은 중국인 학생들이 듣는 건물과 따로 있습니다. 7교라는 외국인 학생 전용 건물이 있으며, 예외로 nba 건물에서 듣기도 합니다. 강의실은 40명이상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대부분 2-30명 정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사 진 첨 부

됩니다. 최근 학교 북문 쪽 재개발 공사로, 학교 근처 상권들이 많이 사라졌으며, 2019년 1학기가 끝난 기준으로 공사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학생식당이 4개 이상으로 많은 편이고, 학생 식당에서 한국 음식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식당 안에는 패스트푸드, 카페 매점 등 많은 편의 시설이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세탁실의 경우 여자 기숙사 c동은 1층에만 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약간 노후 되어 세탁하다가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16동은 층마다

따로 세탁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 진 첨 부

교환학생 파견 수기

광저우 광둥외어외무대학교에 첫 파견 됐을 당시 혼자 파견되어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광저우에서 그만큼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광저우에서 만난 새로운 좋은 인연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광저우 광둥외대에 혼자 파견되시더라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저우의 2월-4월은 한국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날씨와 비슷하며, 5월에서 6월은 한국의 여름과 비슷한 날씨였습니다. 1학기에는 우기도 꽤있어 비도 자주 오고 덥고 습함이 더욱 심합니다. 1학기 파견자였던 저로써는 날씨로 인한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2학기를 지내본 학생들에게 들어본 결과 9월부터 12월은 한국의 가을 날씨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많이 춥지 않지만, 한국만큼 난방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아 난방기기를 구매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파견 되는 학생들은 맑은 날씨가 계속 되어 지내기 좋고, 학교에서도 많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광저우는 중국에서도 아주 큰 도시로, 다양한 볼거리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광둥지역 특히 광저우는 음식들이 맛있다고 유명하며, 실제로 저 또한 입맛이 아주 잘 맞아 광저우에서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40분 정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주강을 볼 수 있고 광저우 타워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강에서 유람선을 타면 광저우 타워와 광저우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볼거리로는 샤미엔이나 주강신청, 캔톤 페어, 광저우 도서관, 미술관 등등 보고 즐길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처 심천이나 불산 등의 도시도 여행하기 좋고, 홍콩과 마카오로도 가까워 여행하고 즐기기도 좋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물론 다른 도시로 교환학생을 가도 그렇겠지만, 약간 더 기초가 탄탄하고 더 중국어를 잘하고 왔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외어외무대학교이다보니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중국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더욱 더 중국어를 잘했다면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매년 2번 개최하는 캔톤 페어와 여러 행사를 돌아다니며보면서 중국어의 필요성이 더더욱 느껴졌습니다. 광저우의 경우 학교 행사 말고도 중국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많은 외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이 보고 즐기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